

## □ 관련공약

- 공 약 명(3-1-1) :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 공약내용 : 도내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 소통실적

- '17.1.3. 신문보도(강원도민일보)
  - 청·장년 정규채용 기업 매달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17.1.23. 신문보도(연합뉴스)
  - 기업 경영개선·근로자 생활안정... 강원도형 일자리시책 가동
- '17.1.23. 신문보도(한겨레)
  - '재취업 지원·정규직 확대·장기재직' 강원도형 일자리 3총사 주목
- '17.2.9. 신문보도(강원도민일보)
  - 경단녀도 일자리 보조금 지원
- '17.5.25. 신문보도(헤럴드경제)
  -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형 일자리 3대 모델 완성될 것"
- '17.10.27. 방송토론회(KBS 춘천)
  - 집중진단 강원 '청년 없는 강원도에는 미래가 없다'
- '17.11.9. 라디오방송(TBN 강원교통방송)
  - 청년의 꿈을 직업으로
- '17.12.27. 신문보도(강원도민일보)
  - 도 일자리 3대 시책에 중기 '관심'
- '17.12.28. 신문보도(헤럴드경제)
  - 최문순 강원도지사, "2018년은 글로벌 수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변곡점'을 맞이하는 해"

# □ 실적자료

## 경단녀도 일자리보조금 지원

도의회 조례 개정안 가결  
인원제한 확대 등 규정 완화

김여진 2017년 02월 09일 목요일

댓글 0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사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확대된다.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8일 박현창(평창새누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청장년일자리 보조금은 최문순 지사의 지방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도내 기업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조례 개정안은 도내 청장년 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했다.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청장년 뿐 아니라 15세초과 64세미만 나이 전구간이 대상이다. 또 1개 기업당 5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인원제한을 10명까지로 확대했다.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도내 고용유지 경력이 2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박현창 의원은 "일자리보조금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대상이 늘어나면 도내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이날 도감사관실과 강원인재육성재단,문화관광체육국과 경제진흥국,도교육청 교육국,강원 FC 등으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등 상임위원 일정에 들어갔다. 김여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진의 다른 기사보기

‘17.2.9.(강원도민일보)

##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형 일자리 3대 모델 완성될 것"

기사입력 2017-05-25 07:18

-강원도, 바디텍메드(주)등 5개 기업과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력약 체결



[해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서울에 프렌비(대표 오덕근), 바디텍메드(대표 최의열), 한국고용정보(대표 손영득), 휘닉스평창(대표 민병관·우진홍), 한술개발(대표 전유택)등이 25일, 고성군청에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도입을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근로자는 이직에 따른 자발적 실업은 물론 기업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실직의 경우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처 탐색이나 재취업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재취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복유립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인 겐트시스템의 강원도형 도입을 추진해 왔다. 도는 덴마크 벤치마킹과 전문가 토의 등 안심공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시멘트 업체, 관광 리조트 등 인력고용이 많고 건설한 도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 등록기업인 바디텍메드(주)를 포함한 5개 기업이 올해 하반기 도입될 안심공제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 많이 본
- 1 "평형 전장"
  - 2 하지 수 사
  - 3 법다 등일
  - 4 한국 준표
  - 5 '꽃피울

‘17.5.25.(해럴드경제)

집중진단 강원

2017-10-27(금) 16:00 KBS 1TV

청년 없는 강원도에는 미래가 없다

‘17.10.27.(KBS춘천)

## 도 일자리 3대 시책에 중기 관심

사회보험료 지원일자리 안심공제 등 경영 위기 극복·고용불안 해소 기대

신관호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댓글 0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급여) 인상을 앞두고 강원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이 경영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강원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심공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시책을 추진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체 중 직원 월급 190만원 미만고용기간 1개월 이상을 유지(최저임금 준수·고용보험 가입원칙)한 사업주의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영세기업체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현재 정부가 신규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한시적인 경감방안으로 이를 도의 지원사업이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도 관심이 높다.도는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근로자가 각각 적립해 근로자의 목돈을 마련하는 전국 공통의 내일채움공제사업에 더해 올해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올해 시범사업에는 당초 250명의 목표치보다 7.6배에 달하는 1903명의 근로자가 청약을 신청했다.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도 도내 중소기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청장년,경력단절 여성의 정규직 채용시 월 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구인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도내 한 기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체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늘어 고용불안 요소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관호의 다른 기사보기

‘17.12.27.(강원도민일보)